舊譯仁王經 구결의 시상과 서법 선어말 어미

김영욱 *

1.0. 들어가기

구역인왕경(이하 '구인') 자료에서는 시제 범주를 단독적으로 설정할 만한 형태론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1] 15세기 국어만 하더라도 '-더-'라는 시제 관련 문법형태가 존재하지만 구인에서는 '-더-'에 대응될 만한 문법형태가 없다. 기존의 논의에서 현재의 시제 형태로 분석된 '-ㅌ-, -ㅈ-, -ㅏ-' 등이 과연 그런지도 의문이며 과거 시제 형태는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 글은 동작상과 관련된 선어말어미 '-ㅏ-, -ㅌ-, -ㅁㅌ-'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문장에 대한 시간 해석은 필요에 따라

* 서울시립대 국문과

1) 구인의 선어말어미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업적으로는 백두현(1997ㄴ: 91-92)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시상과 서법과 관련된 선어말어미에는 '-ㅏ-(완료 또는 완료 지속) ; -ㅌ-, -ㅈ-, -ㅏ-(현재), -ㅎ-(미래) ; -ㅎ-(추정법), -ㄷ-(감동법), -ㅁ-(확인법 또는 감동법), -ㅿ-, -ㅇ-(확인법)' 등이 있다고 하였다.

동작상에 기대기로 한다. 또한 직설법과 관련된 '-ㅏ-, -又-', 추측법의 '-ㅊ-', 확인법의 '-ㅿ/ㅱ-', 원망법의 '-ㅁ-' 등의 의미 기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2.1. -ㅿ(겨)-

'-ㅿ(겨)-'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승재(1991)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서는 '-ㅿ-'의 분포가 '-ㄴ-'와 배타적이라는 점, 이것과 호응하는 주어가 '대중불자류'에 속한다는 점을 근거로 '-ㅿ-'를 높임법의 형태로 파악, 고려 중기의 주체경어법을 '-ㄴ- : -ㅿ-: ∅' 등과 같은 3등급 체계라고 주장하였다. 15세기 중세국어의 '겨쇼셔'의 '겨-', 현대국어의 '계시-',방언의 '지겠소' 등을 감안한다면 'ㅿ'가 높임 표현과 관련이 있는 듯하지만, '높임 표현'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문법범주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겨-, 계시-, 지-' 등은 어휘적인 높임 표현의 문제이다.[2] -ㅿ-와 호응하는 주어가 '대중불자류'가 아닌 '중생류'인 경우도 있다.[3][참고:五道ㅣ 一切 衆生ㅣ 有ㅣᄒᆞᄂᆞᆺ(구인: 2: 1-2)] '-ㅿ-'가 진정한 주체높임 형태소라면, '-ㄴ-'가 무생물 주어와 호응하지 않는 것과 같이 '-ㅿ-'도 그래야 할 것이다. 그런데 '-ㅿ-'의 주어가 생물이어야 한다는 제약은 없다.[참고: 百億寶帳ㅣ 成ㅿㅱ(구인: 3: 20-21)]

남풍현(1996:15)에서는 '發心ᄋᆞᆫᄀᆞᆯᄊᆞᆺ'의 'ᄉᆞ'를, 15세기 국어의 '(-어) 잇-'에 계통이 이어지는 조동사라고 하였다.[4] 백두현(1997ㄴ:42)에

---

2) '지겠소'를 '제:겠소<겨+겨+었+소'로 분석하여 두 번째의 '겨'가 경어법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겠소'를 공시적으로 분석할 때, 높임 표현과 관련된 '지-'는 어휘적인 표현 수단일 터이다.

3) 물론 높임법이 지니는 화용적인 특성상 비록 한 등급이 낮은 '중생류'의 경우에도 높임의 -ㅿ-가 호응된다고 할 수는 있다. 등급의 유동이 높임법에서는 어느정도 허용되기 때문이다.

서는 이두의 '-在-'에 대한 박성종(1996:250-3)의 견해와 고영근(1981=1997)의 서법 체계에 기대어 '-ㅏ-'에 대한 의미를 '완료 또는 완료 지속' 정도로 해석하였다. 구인에서 '-ㅏ-'는 어간의 문법적 성질과 상관없이 분포하며 대체로 [+완료]의 동작상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5)]

(1) 五道ㅅ 一切 衆生ㅣ 有ㅅ나ᄉᆞ (구인: 2: 1-2)

(2) 今ᄂᆞᆨ 於我ᄅᆞ 前ᄋᆞ로ᄂᆞᆫᄋᆞ 大師子吼ᄒᆞᄂᆞᆫᄃᆞ ㅣ(구인: 11: 20-22)

예문(1)은 '오도의 일체 중생이 있었으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6)] 이것만 본다면 '-ㅏ-'를 [과거]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예문(2)는 사정이 다르다. '지금'이라는 뜻을 가진 '今ᄂᆞ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예문 (2)에 대한 시간적 해석은 '현재'가 합당하다. 15세기 직설법 '-ᄂᆞ-'에 대응되는 'ㅣ'가 'ㅏ'에 후접되었다는 것도 'ㅏ'를 [과거]로 해석할 수 없게 한다. 직설법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화자가 사태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서법의 일종이다. 그것의 시간적인 해석은 [현재]이고 동작상의 관점에서는 [진행]의 의미를 띤다. 'ᄂᆞᆫᄃᆞ ㅣ'는 '하고 있다, 하는 중이다' 등으

---

4) 어간과 어간이 연결되는 조어법이 중세국어에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다.[참고: 빌먹-] 그러나 동사 어간(發心ᄂᆞ) 뒤에 바로 보조 동사가 오는 통사적 구성은 현대국어는 물론이고 중세국어에서도 상정하기 어렵다.

5) 완료의 동작상은 시제와 관련하여 '과거완료, 현재완료, 미래완료' 등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구인에 반영된 당대의 언어 현실에서는 15세기 국어와 차이를 보인다. 우선 과거에 대응되는 '-더-'가 보이지 않으며, 미래의 '-리-'에 대응되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 물론 음상으로는 이와 같은 'ᄐᆞ[리]'가 있지만, 이것을 15세기 국어의 '-리-'에 직접 대응시키기에는 의미해석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배열 위치 또는 분포상의 차이도 있다.

6) 김두찬(1997:178)에서는 'ㅏ'를 [완료, 과거]로 해석하였다. 물론 이것을 '있었으며' 대신에 '있으며'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예문(1)의 명제에 대한 시간적인 해석은 문법 범주의 형태론적 분석을 통해서 간단하게 답이 주어질 성질의 문제는 아닐성싶다. 여러 가지 문맥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로 해석된다. 'ㅅㄴㅏㅣ'는 '완료된 동작이 지속되는 상황을 화자가 직접적으로 인식하여 표현'한 것이다.

2.2. -ㅌ-

이승재(1993)는 '-ㅌ-'를, 15세기 국어와 관련지어 확인법 선어말어미 '-거/어/나-'의 '-나-'에 대응되는 것이라고 하였다.[7] 정재영(1996ㄱ)은 '-ㅌ-'를 '-ᄂᆞ-'에 대응된다고 하였다. 비록 '-ㅌ-'가 15세기의 '-ᄂᆞ-'와 분포상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 기능은 같은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ㅌ쇼'의 '-쇼'를 명령형어미로 파악하는 관점에 따르면 명령형에 현재 시제형태가 결합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은 '명령문 시제 제약'에 어긋난다.[8] 백두현(1997)에서도 '-ㅌ-'를 '-ㅏ-'와 같이 '현재'라고 하였다.[9] '-ㅌ-'와 '-ㅏ-'가 분포상으로 차이를 보이는데, 여기에 동일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10]

(3) 假有ㅅㄴㅏㅣ分 無ㄱ 無ㅅㄱ矣ᄉᆞ 諦實ㅅㄱㅌㄷ 無ㅣㅌㄱㅣㅛ(구인: 15: 1)
(4) 大光明ᄒᆞ 放ㅅᄉᆞ 三界ㄷ 中ᄒᆞ 照ㅅㅌㅎㄴㅋ分(구인: 2: 11-12)

예문 (3)에서 ' 無ㅣㅌㄱㅣㅛ'의 '-ㅌ-'는 계사 뒤에 붙은 것이다.[11] 계

---

7) 15세기의 '나'는 '오-' 뒤에서만 나타나는 데에 비해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통합되는 어간의 동작류적 속성과는 상관없이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8) 명령형 종결어미가 시제 관련 선어말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는 점은 박영준(1994:34)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9) '-ㅌ-'가 15세기의 '-ᄂᆞ-'와는 기능이 동일하지 않으리라는 주장은 장윤희(1997)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10) '-ㅌ-'와 '-ㅏ-' 중에서 15세기의 '-ᄂᆞ-'에 기능상으로 잘 대응되는 것은 오히려 '-ㅌ-'보다는 '-ㅏ-'인 것으로 보인다.
11) '諦實ㅅㄱㅌㄷ'의 'ㄷ'을 관형격 조사로 분석한다면 후행하는 無는 체언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 뒤의 선어말어미 '-ㅌ-'는 구인에서 매우 드물며 예문(4)의 '照ンㅌハニカ'에서처럼 주로 'ン' 뒤에서 'ㅌハニ'로 나타난다. '-ㅏ-'는 'ンナㅏ'에서 알 수 있듯이, '-ナ-'와 통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 '-ナ-'와 계열관계에 있는 '-ㅌ-'와 분포가 다르다.[12] 그러나 (3)의 '-ㅌ-'는 '-ㅏ-'와 의미 기능이 흡사한데 15세기 국어의 '-ᄂᆞ-'에 대응됨직한 것으로 [직설법]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4)의 경우는 이와 양상이 다르다. 'ㅌハニ'의 '-ㅌ-'는 '-ㅏ-'와 분포와 기능이 모두 다르다. 구인의 자료에서는 이런 유형에 속하는 '-ㅌ-'가 (3)의 '-ㅌ-'에 비해 훨씬 우세하다.

'ㅌハニ'의 '-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ナ-'와 계열관계를 이룬다는 점과 명령형 종결어미와도 결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ㅌ-'는 시제 형태가 아니다. 또한 '-ㅏ-'와 다르다는 점에서 서법 형태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동작상과 관련된 형태일 터인데 '-ナ-'와 계열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의미기능상 대립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므로 '-ㅌ-'가 적어도 [+완료]는 아니다. 예문(4)는 ' 큰 빛을 온 세상에 비추고 있다'는 뜻인데, 이 명제의 동작양상은 '진행'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ㅌ-'를 [진행]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照ンㅌハニカ'의 '-ㅌハニ-' 전체가 진행상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것을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ㅌハニ'는 일차적으로 '有ナハニカ'(구인: 2: 3)'와의 비교를 통하여 'ㅌ+ハニ'로 분석할 수 있다. 문제는 'ハニ'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다. 이승재(1991)는 'ロハニ'를 '-고+ㄱ#이시/잇/시-'로 분석했는데 'ㄱ'은 '對句'의 기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시-'는 존재 동사 어간이라고 하였다. 백두현(1997:73)은 'ㅌハニ'를 'ㅌ+ハ+ニ'로 분석하였다. 이때의 '-ハ-'가 무엇인지도 문제이지만, 'ㅌハニ' 구성의 'ニ' 중에는 높임의 '-시-'와는 무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문제이다.[13] 'ハ'를 어간으로 분석할 가능성도 있다.

---

12) '-ㅏ-'의 분포와 기능에 대해서는 백두현(1997: 54-8)을 참조할 수 있다.

13)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이승재(1991)의 처리 방식이 문법사의 관점에서는 더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한다.

(5)我ㄱ 八住ㅌ 菩薩ㅣ尸 爲のしンㅣハ白ろㄱのm (구인: 11: 20-22)

'のしンㅣハ白ろㄱのm'은 'のし#ンㅣ#ハ白ろㄱ#のm'로 분석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따르면 'ハ白ろㄱ'의 'ハ'는 어간이다. 이것은 구인에서 유일례인데, 이에 따라 'ㅌハニ'의 'ハ'를 어간으로 분석하면 'ㅌ#ハニ'의 'ㅌ'는 어말어미이거나 선어말어미로 끝나는 형태가 된다. 그렇다면 구인의 ' ナハニ, ロハニ, ミハニ, ムハニ' 연결체의 선어말어미류 '-ナ-, -ロ-, -ミ-, -ム-' 등은 어말어미가 없어도 하나의 어절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14] 이러한 결론은 국어의 동사형태부는 어말어미에 의해서 마감된다는 일반적인 '활용 구조 조건'에 어긋난다.[15] 따라서 'ㅌハニ[ㄴ기시]'를 '-ㄴ+ㄱ#이시-'로 분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16] 이것을 '-ㄱ#시-'로 볼 수도 있지만[17] 여기에서는 'ハ'를 [기]로 읽는다.[18]

---

14) 'ム'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어말어미의 위치에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5) "我ㄱ 八住ㅌ 菩薩ㅣ尸 爲のしンㅣハ白ろㄱのm (舊仁11:20-22)"에서 'のし#ンㅣ#ハ白ろㄱ#のm'로 분석했을 경우에 해석상의 문제도 있다. 'ハ白ろㄱ'의 'ハ'를 어간이라고 한다면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문맥에서 유추하기가 쉽지 않다. '白'의 경우도 이것이 선어말어미여야 할 터인데, 여기서 객체에 대응되는 것은 '보살'이다. 이때의 '보살'은 '나(화자)'이므로 '-白-'을 객체 높임으로 본다면 '나(화자)'를 높인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16) 여기에 따르면 구결자 'ハ'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하나의 문법형태가 아니라 [ㄱ+이]와 같이 두 개로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결문자는 기본적으로 음절문자이다. 구결자는 음의 연쇄를 반영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하나의 구결자가 반드시 하나의 문법형태에 대응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가령, 구결자 'ㅌ'은 분포 위치에 따라 [ㄴ+ㅇ]로 분석되기도 한다.

17) 'ハニ'의 독음과 관련하여 [ㄱ시]로 읽는 경우도 있지만 [기시]로 읽는 것이 더 일반적인 듯하다. 구역인왕경상에 대한 97년도 구결학회 월례강독회 원고 황선엽(1997), 박성종(1997), 정재영(1997), 백두현

'-ㄱ'의 의미 기능을 이승재(1991)에서는 [대구]로 파악하였다.[19] 김두찬(1997:210)에서는 '爲のしンイハ白ろㄱのm (구인11:20-22)'의 'ハ'를 '동작 지속상'으로 파악하였다. '-ㄱ'이 분포상으로는 어말어미 또는 보조사의 위치에 해당하며, 이러한 배열 위치를 지닌 것으로는 '-ホ, -ㅔ' 등이 있었다.[20] 현재로서는 '-ㄱ'의 의미를, 본동사와 보조동사를 이어주는 [연결]의 의미보다 더 좁혀서 파악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이시-'는 15세기 국어의 '이시/잇(有)-'에 대응되는 보조동사 어간으로 [지속]의 의미를 지닌다. 'ㅌハニ' 전체가 '진행'의 의미로 해석되고 '-ㅌ-'가 '-ナ[+완료]-'와는 대립적인 의미를 지니므로 '-ㅌ-'의 의미는 [-완료]이다.[21]

2.3. -ロㅌ-

구인에서 '진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조 동사 구성에 기댄 '-ㅌハニ-'가 있다. 그런데 이것과는 다른, 또 하나의 구결 연결체를 발견할 수 있다.

(6) 其佛ヒ 座前ろ十 自然ぢ 而m 九百萬億劫花リ 生ノㄱム 上ンㄱ 非想非非想天ろ十 至ナか 是ヒンㄱ 時十 世界ヒ 其地ㄱ 六種m 震動ンロㅌㅣ(구인:

(1997) 등에서 모두 [기시]로 읽고 있다. 유독 박진호(1997)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었다. 6월28일자 원고에서는 [ㄱ시]로 읽고, 9월27일자 원고에서는 [기시]로 읽었다.

18)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 당시 차자 표기의 일반적인 원칙이었던 '일자 일음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19) 'ㅌハニ, ロハニ, ㅊハニ, ナハニ, ろハニ' 구성에 나타나는 '-ㄱ'에 대하여 모두 [대구]로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20) '-ハ'와 더불어 '-ホ, -ㅔ' 등은 보조사류의 일종으로 어말어미 역할도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하위 범주를 형성한다. 이것들의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21) '-ㅌ-'가 '현재'라는 시간적 해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완료]라는 의미 자질에서 파생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적어도 구인의 '-ㅌ-'는 '-ナ-'와 함께 동작상의 범주에 속했다.

2: 17-18)[22]

'至ナ가'는 꽃이 위로 움직이는 동작이 '완료'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震動ソロヒ ㅣ'는 땅의 진동이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인에서는 [진행]에 대응되는 것으로 '-ロト-'도 있는데[참고:歡ソ白ロトろ ㅣソヒハニ ㅣ(구인11, 13)] 이것도 '-ロヒ-'과 한가지로 [진행]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공시적인 관점에서 '-ロヒ-'을 더 분석하기는 어렵다.[23] '-ロヒ-'이 [진행]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 時十 無色界七チ기 量 無七기 變ノ기ヒ七 大香花し 雨ろ기ム 香기 車輪 如ㅣソき 花기 …… 雲 如ㅣソう 而ㅠ 下ソロヒしカ (구인: 2: 14-15)[24]" 등에서도 알 수 있다. '下ソロヒしカ'는 대향화가 내리는 동작이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25]

---

22) '그 부처 자리 앞에 자연히 구백만억겁 꽃이 생겼는데, 위로는 비상비비상천에 이르고 이때에 세계의 땅이 육종으로 진동하고 있었다'

23) '-ロヒ-'의 'ロ'는 선어말어미 '-ロ-'와의 기능상의 공통점이 없으며 '-ロヒ-'가 하나의 전체로서 [진행]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므로 '-ヒハニ-' 구성처럼 부분적인 의미가 합성된 경우와는 다르다. 뿐만 아니라, [완료]의 '-ナ-'와 계열관계를 이루는 것은 '-ロヒ-' 전체이다. [참고: ソロヒ ㅣ;ソナ ㅣ]

24) '이때 무색계에는 양 없은 변하는 것의 대향화를 뿌리되 향은 수레바퀴 같고 꽃은…… 구름 같하여 그리하여 내리고 있으며'

25) 김두찬(1997:186)에서는 '(降)下하고 날으며'로 해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ロヒ-'을 선어말어미로 분석하기보다는, '연결어미+어간'의 구성으로 파악한 듯 싶다. '下ソロヒしカ'의 'し'은 그것의 형태론적 위상이 불분명하다. 위치상으로는 선어말어미의 위치로 짐작이 되지만, 이것을 '-し-'로 분석하여 [미래] 또는 [추측]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참고: 문맥상 해당 명제를 미래나 추측으로 해석할 수 없고 과거나 진행 등의 동작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 또한 이것을 이른바 동명사형어미로 분석할 수도 없으며[참고: 후접하는 '-カ'를 설명할 수 없음.], 목적격조사로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참고: '下ソロヒ-'는 논항이 아님]. 아마도 이것은 이전 시대의 문법질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공시적으로는 뚜렷한 문 법 기능을 확인할 수 없는 잔존형

3.1. -ㅏ-/ -又-

'-ㅏ-'는 화자가 사태를 직접적이면서 사실적으로 인식하는 '직설법'의 선어말어미이다.

(7) 是 如ㅣᄂᆞᆫᄃᆞ 是 如ㅣᄂᆞᆫᄃᆞᆯ 汝ᄅᆞ 解ᄂᆞᆫ又ᄀᆞ 所ᄃᆞᆯ 如ㅣᄂᆞᆫᄂᆞᆫᄀᆞ 眞義ᄅᆞᆯ 得ᄃᆞᆯ 說ㅏᄀᆞᄅᆡᄆᆞ(구인: 11: 22-23)

예문(7)은 '이 같으며 이 같하여 너의 풀이하는 바 같았으니 진의를 얻어 말(講說)하느니라'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26] '說ㅏᄀᆞᄅᆡᄆᆞ'의 '-ㅏ-'는 화자가 사태를 사실적으로 인식하는 '직설법'의 형태이다.[27] 15세기의 '-ᄂᆞ-'에 대응되는 구인의 문법형태로는 '-ㅌᆞ-'와 '-ㅏ-'를 고려해볼 수 있다. 구인에서 '-ㅌᆞ-'와 '-ㅏ-'가 같은 문법형태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앞에서도 논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ᄂᆞ-'에 더 가까울까? 15세기의 '-ᄂᆞ-'는 동작동사의 형태부에 분포하는데 '-ㅏ-'도 이러한 분포 양상을 띤다.

(8) 幻化ᄅᆞ 見ㅏᄅᆞᆷ(十五,8), 大光明ᄅᆞ 放ᄂᆞᆫᄃᆞᄅᆞᆷᄀᆞᄉᆞᆫᄀᆞ(二,23), 衆生ᄅᆞ 化ᄂᆞᆫᄃᆞᄀᆞᄉᆞ(十五,11-2),

事ᄅᆞ 作ᄂᆞᆫᄐᆡᄂᆞᆫᄃᆞᄀᆞᄅᆡᄃᆞᆯᄐᆞᄅᆞᆫᄇᆞᄂᆞᆫᄀᆞᆷ(二,23), 摩訶衍ᄐᆞ 化ᄅᆞ 行ᄂᆞᆷᄂᆞᆫᄃᆞᄀᆞᄉᆞ(二,24),

---

태(이른바 '공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下ᄂᆞᆫᄆᆞᄐᆞᄅᆞᆫᄀᆞᆷ'는 '내리고 있으며' 또는 '내리고 있었으며'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온당할 듯 싶다[참고: 두 가지 해석의 차이는 부정시제에 대한 해석을 [현재]로 할 것인지 [과거]로 할 것인지의 차이임].

26) '如ㅣᄂᆞᆫᄂᆞᆫᄀᆞ'을 '如ㅣᄂᆞᆫᄂᆞᆫᄂᆡ'로 읽어서 '같(았)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김두찬(1997:211)을 참조]. 만일 원문의 구결토 '如ㅣᄂᆞᆫᄂᆞᆫᄀᆞ'으로 읽는다면 이때의 'ᄀᆞ'은 연결어미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다.

27) 이때의 '-ᄀᆞᄅᆡᄆᆞ[니라]'는 15세기의 둘째 설명형어미에 대응되는 것이다.

因緣ㅣ 問白 欲ㅅ ᄉᆞᆫᄃᆞ토ᄃᆞᆨ ᄉᆞᆫᄃᆞ시ᄉᆞᆫᄀᆞᆮ(三,17-18), 煩惱ᄂᆞᆫ ᄂᆞᆫᄃᆞᆫ 除ᄉᆞᆫᄃᆞ토ᄃᆞᆨ ᄉᆞᆫᄃᆞᆨᄀᆞ(十一,1-2),

三寶ㅣ 禮ᄉᆞᆫ白ᄅᆞ토ᄃᆞᆨᄀᆞᄂᆞᆫ(十一,8), 佛ㅣ 歡ᄉᆞᆫ白ᄅᆞ토ᄃᆞᆨᄒᆡᄉᆞᆫᄇᆞᄒᆞᄂᆞᆫᄒᆡ(十一,13),

大師子吼ㅣᄉᆞᆫᄂᆞᆫᄒᆡ(十一,21-22), 眞義ㅣ 得ᄒᆞᄂᆞᆫ 說ᄃᆞᆨᄀᆞᄅᆡᄆᆞ(十一,22-23), 幻花ㅣ 見ᄃᆞᆨᄀᆞᄅᆡᄆᆞ(十四,1),

見ᄂᆞᆫᄃᆞᆨᄀᆞᄅᆡᄂᆞᆫᄒᆡ(十四,13), 無ᄅᆡᄂᆞᆨᄀᆞᆫ ᄉᆞᆯ 見ᄃᆞᆨᄀᆞᄅᆡᄆᆞ(十五,3), 不矢ᄀᆞᆫ ᄉᆞᆯ 見ᄃᆞᆨᄀᆞᄅᆡᄆᆞ(十五,4), 衆生ㅣ 見ᄃᆞᆨᄅᆞ(十五,8)

'-ᄃᆞ-'가 나타나는 동사형태부의 어간은 '見-, 放ᄉᆞᆫ-, 作ᄉᆞᆫ-, 行ᄉᆞᆫ-, 問-, 除ᄉᆞᆫ-, 禮ᄉᆞᆫ-, 歡ᄉᆞᆫ-, 說-' 등과 같이 모두 동작 동사에 속한다. 그러나 '-ᄒᆡ-'에는 이러한 동작류적인 특성에 따른 분포상의 제약이 없다.[28] 한편 15세기 국어의 '-ᄂᆞ-'에는 동작상의 기능도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는 [-완료]의 '-ᄒᆡ-'가 '-ᄂᆞ-'에 가깝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9) -ᄒᆡ- ┐
-ᄃᆞ- ──┴──> -ᄂᆞ-

'-ᄃᆞ-'가 -ᄒᆡ-에 합류되었다기보다는 '-ᄒᆡ-'가 '-ᄃᆞ-'에 합류함으로써 15세기의 '-ᄂᆞ-'가 형성되었다. '-ᄒᆡ-'보다는 '-ᄃᆞ-'가 분포상, 기능상 '-ᄂᆞ-'에 좀더 가깝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인에서 '-乂-'의 예는 예문(7)의 '汝ᄋᆞ 解ᄉᆞᆫ乂ᄀᆞ 所ᄋᆞ'가 유일한데, 이때의 '-乂-'는 '-ᄂᆞ+오-'로 분석할 수 있다.[29]

---

28) 비록 화엄경의 예이기는 하지만 'ㄹᆡㅂᆞ효' 유형의 예는 정재영(1996)에서 다룬 바 있고, "能矣 答ᄉᆞᆫᄃᆞᄉᆞᆺᄒᆞᆫ 者 無ᄒᆞᆫᄇᆞᄒᆞᄂᆞᆫᄒᆡ <三,2-3> 亦ᄉᆞᆫᄀᆞ 復ᄒᆞ 是ㄹᆡ 如ㅣᄉᆞᆫᄇᆞᄒᆞᄂᆞᆫᄀᆞᆫ <三,11-12>"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ᄇᆞ'는 無ᄒᆞ-, 如ㅣᄉᆞᆫ-'와 같이 상태동사 어간에도 분포한다. '-ᄇᆞ-'의 분포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백두현(1997: 48-54)를 참조할 수 있다.

29) 그렇다면 이때의 '-오-'는 관형절에 나타나는 이른바 '대상 활용의

3.2. -ㅈ-

백두현(1997:58-64)에서는 '不多ノㅈリナㅣ(구인03:23-25)'의 예에 나타나는 'ㅈ'를 '추정법'의 선어말어미로 분석하였다. 만일 이때의 'ㅈ'를 선어말어미로 본다면 'ノㅈリナㅣ[호리이겨다]'를 'ᄒᆞ+오+리+이+겨+다'로 분석된다. 서법 형태 '-리-'가 동작상 형태에 선행한다는 것도 설명이 필요하지만[30] '-리-' 뒤에 계사 '이-'가 나타나는 것을 공시적으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이때의 'ㅈ'를 '관형사형어미+의존명사' 구성으로 분석하면 이러한 의문점들이 해소된다. 구인에서 'ㅈ'는 17회 정도 출현하는데, 대체로 'ノㅈリ分(ノㅈリナㅣ)形'이 대부분이다. 이때의 'ㅈ'는 선어말어미로 분석할 수 없다.[31] '-리-'와 관련하여 구인에서 1회 출현

-오-'일 터인데, '-오-'의 용법이 15세기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구인 자료에서 이와 같이 15세기에 정확하게 대응되는 예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흥미롭다.

30) 국어의 문법범주들의 배열 위치는 그것들의 기능과 상관 관계를 지닌다. 예를 들어 태(voice)와 관련된 피·사동 접사들이 어근에 가장 가깝고, 동작상(aspect)과 같이 명제(proposition) 내부의 서술어와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서법(mood)처럼 명제 내부의 서술어와는 관계없이 명제 전체에 관여하는 것보다는 어간에 가깝게 위치하는 것이 국어 문법형태들의 일반적인 배열 순서이다. 이러한 '관여성의 원리(principle of relevance)'에 따라 동사형태부를 범언어적으로 기술한 업적으로는 Bybee(1985)를 들 수 있다. 형태 배열, 즉 형식의 문제가 의미(기능)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은 언어의 '자의성'과는 또 다른 측면인 도상성(iconicity)과 관련된 문제이다. 도상성을 자연 언어의 본질을 밝히기 위한 중요 개념, 또는 기본 원리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 굴절 형태론을 기술한 업적으로는 Wurzel(1989)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도상적일수록 자연스럽다(natural)고 하였다. 국어의 형태연쇄론(morphotactics)은 도상성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31) 그렇다면 구인 시대에 과연 '-리-'가 없었겠는가? 그렇게 속단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향가 자료에도 나타나며 화엄경, 금광경 등, 다른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리-'가 구인에서 나타

하는 'ノᄒᄀᆞᄂᆞ(호리녀)(구인: 十四,5-6)'의 'ᄒ'는 화자의 의지와 관련된 서법형태로 분석할 수도 있다.[32]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예는 '何ᄂᆞ 得ᄅᆞᅀᆞ 可ᄂᆞᄉᆞᄒᄆᆞᄅᆞ(구인:十五,5)'으로[33] '-ᄆᆞᄅᆞ'는 의문사 '何ᄂᆞ'가 있으므로 의문형 어미다.[34] '-ᄅᆞᅀᆞ 可ᄂᆞ ᄉᆞ-'가 '가능성(possibility)'을 나타내는 양상(modality)의 일종이므로[35] 이와 어울리는 '-ᄒ-'도 서법

나지 않는 것은, 15세기의 '-리-'에 대응하는 형태가 그 당시에 없었다기보다는 구인자료의 특수성에 따른 우연일 것으로 보인다.

32) 고영근(1995: 176-7)에서는 15세기 'ᄒ려'의 기저형을 '*ᄒ리녀'로 잡은 적이 있다. 'ノᄒᄀᆞᄂᆞ'와 'ᄒ려'의 대응 여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지만 이것의 대응관계가 밝혀진다면 이러한 예는 국어의 관형사형 어미의 '단일 기저형 가설'을 지지하는 경험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관형사형 어미 단일 가설'은 중세국어의 시제와 서법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의 부산물이었다.[고영근(1981),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탑출판사.]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고영근(1982)였는데['관악어문연구7집'에 실려 있음], 최근 고영근(1995)에 수록되어 있다.

33) 何ᄂᆞ 得ᄅᆞᅀᆞ 可ᄂᆞᄉᆞᄒᄆᆞᄅᆞ'를 김두찬(1997:225)에서는 [어뒤ㅅ여 얻ᄂᆞ옴 어루ㅅ ᄒ리긔고]로 해독하고 있다.

34) 물론 '-ᄆᆞᄅᆞ'를 더 분석할 수도 있다. 이것을 'ㄹ+고'로 분석한다면 'ᄒ'를 'ㄹ+이'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공시적으로 가능한 분석인지도 세밀히 검증해야 할 문제이지만, 과연 당시의 화자들이 '의미 기능'도 불분명한 형식적 어미들을 하나의 어간 뒤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생성한다는 것이 인지적으로 타당한지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35) 양상(modality)은 명제 논리의 진리치 부여를 가능성(possibility)과 필연성(necessity)의 명제까지 확장하려는 양상 논리(modal logic)에서 비롯된 것인데 [고영근(1995:249-51), 철학대사전(1989:842-5)을 참조.], '가능성'이란 명제 또는 사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전통적으로 양상의 영역에 포함된 중심 주제 중의 하나였다. Palmer(1985:20-1)에서도 '가능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팔머(1985: 21-3)에서는 서법(mood)은 전통적으로 굴절형태론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인데 양상(Modality)은 형태론적 기제뿐만 아니라 언어유형에 따라 통사적 수단으로도 표현될 수 있으므로, 굴절 범주(inflectional category)와 관련될 경우에는 서법(mood)라는 용어를

형태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3.3. -ㅿ/ㅱ-

'-ㅿ/ㅱ-'가 15세기 '확인법' 선어말어미 '-거/어-'에 대응된다는 사실은, 이미 백두현(1997: 65-77)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며, '-ㅿ-'와 '-ㅱ-'가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용(1997: 151)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확인법'이란 명제 또는 사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확신'을 나타내는 서법의 일종이다. 15세기에서는 이것이 원칙법 '-니-'와 함께 '부차서법'이라는 하나의 범주를 이루고 있었지만,[36] 석독구결과 관련된 전기 중세국어의 시기와는 사정이 다르다. 구인 자료에서 원칙법의 '-니-'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구인에 나타나는 'ㄱㅖ[니]'가 '見ㅏㄱㅖㅠ(구인:十五,4)'의 유형처럼 설명형어미 '-니라'로 해석되거나, '如ㅣㅅㄱㅖㄱㅎ(구인:十四,6-7)'에서처럼 '명사형 어미+계사'로 해석되기 때문에 원칙법 선어말어미 '-니-'를 적어도 구인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ㅌㅏㄷ'가 전체적으로 '진행'의 의미가 있음에 착안하여, 'ㅿㅏㄷ, ㅱㅏㄷ'도 동작상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시-'가 [지속]의 의미를 지니는 데에 기인한 것이지 '-ㅿ-, -ㅱ-' 등이 동작상의 문법형태이기 때문은 아니다. 적어도 구인에 나타나는 '-ㅿ-, -ㅱ-'는 모두 동일한 기능을 지닌 것으로 서법 형태에 속한다.

사용하고, 유형론적 범주(typological category)와 관련된 경우에는 양상(modality)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국어의 서법과 양상에 관한 기초적인 논의는 고영근(1995:251-61)을 참조할 수 있다.

36) 15세기 국어에는 부차서법의 일종으로 '감동법'의 형태들이 풍부하다. 구인에서는 '-ㄷ-' 정도가 여기에 대응되는 듯하나 이것도 15세기와는 분포 양상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어떠한 결론도 내리기 어렵다.

3.4. -ㅁ-

구인에 나타나는 'ㅁ'의 쓰임은 매우 복잡하다. '震動ᄒᆞᄆᆞᄐᆞᅵ(구인:2:18)'처럼 'ㅁᄐᆞ형'이 있는가 하면, '如ᅵᄒᆞᄆᆞᄒᆞᄂᆞᆨ(구인:3:14-15)'처럼 'ㅁᄒᆞᄂᆞ형'도 있다. 그러나 이런 유형에 포함된 'ㅁ'는 서법과 무관하다. '-ㅁᄐᆞ-'는 이미 앞에서도 논의된 바 있듯이, 공시적으로 더 이상 분석이 불가능한 하나의 선어말어미다. 이것은 [진행]의 동작상에 해당되는데, 이때의 'ㅁ'는 선어말어미 '-ㅁ-'와 음상은 같지만 그 기능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형태소로 분석할 수가 없다. ㅁᄒᆞᄂᆞ형의 'ㅁ'는 [연결]의 어말어미이지 선어말어미가 아니다. 'ㅁᄒᆞᄂᆞ'는 '-고+ᄀᆞ# 이시-'로 분석되는데, 연결상태가 지속되는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때의 '-ᄀᆞ'은 연결 보조사이다. 'ㅁᄒᆞᄂᆞ형'의 'ㅁ'가 선어말어미가 아니라는 점은 선어말어미의 배열 순서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대체로 선어말어미 '-ㅁ-'는 서법의 형태소로 동작상의 문법형태나 주체 높임의 '-시-' 뒤에 나타났다.[37] 진정한 선어말어미 '-ㅁ-'는 '照ᄂᆞᄆᆞᄅᆞᄉᆞᆫᄀᆞ(구인: 11: 10)'에 나타나는 'ㅁᄅᆞᄉᆞᆫᄀᆞ형'의 '-ㅁ-'나 '有ᄒᆞᅵᄂᆞᄆᆞᄅᆞᄉᆞᆺᄀᆞ(구인: 14: 180)'에 나타나는 'ㅁᄅᆞᄀᆞ형'의 '-ㅁ-'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원망] 또는 [청원]으로 해석되는 선어말어미이다.[38] 그런데 '-

37) '-ㅁ-'가 '-거/어-'의 이형태였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승재(1991) 이후에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 문제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했기는 하지만, 백두현(1997:70-1, 73)에서는 '-ㅁ-'가 '-ㅅ/ᄋᆞ-'와는 다른 기능의 문법형태일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 용(1996)에서도 '-ㅁ-'가 '-ㅅ/ᄋᆞ-'와는 다른 형태임을 분포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된 바 있다. '-ㅅ/ᄋᆞ-'가 어간의 자·타동성에 따른 교체 현상이 있는 반면, '-ㅁ-'는 이것과 무관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고-'는 '-거/어-'와는 다른 형태라는 것이 필자의 현재 입장이다.

38) '-ㅁ-'는 15세기 국어에는 '生生애 내 願을 일티 아니케 ᄒᆞ고라(월인석보1: 13)'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흔적을 남기며, '知古如(安民歌 4행, 8행), 待是古如(祭亡妹歌 10행)'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고대국어에도 존재했던 [원망]의 선어말어미였다. '-ㅁ-'는 '願聞是法者ᄀᆞ 疾得成佛道ㅁᄉᆞ(범망경 46)'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음독 구결에

ㅁ-'를 논의하면서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것은, 왜 '-ㅁ-'가 석독구결에서는 'ㅁㄴ'과 같이 'ㄴ'과 함께 나타나는지, 이때의 'ㄴ'이 도대체 무엇인지이다. 현재로서는 공시적으로 'ㄴ'에 대해서 어떠한 문법 기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른바 '공형태(空形態 empty morph)'에 해당된다.[39]

3.5. -ㄹ-

'-ㄹ-'를 백두현(1997:91)에서는 '대상법 또는 인칭법'으로 파악하였다.[40] 15세기에서는 비관형절에 분포하는 '-오-'가 '-시-'와 결합하기 어렵다. 그런데 구인에서는 '居ソニㄹヵセ ㅣ(구인:十一,7), 說ミハニㄹ ㅣ(구인:二,21-23)'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비관형절임에도 불구하고 '-ニ-'와 '-ㄹ-'가 함께 나타난다. 게다가 이러한 예가 나타나는 문장의 주어는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이므로 이때의 '-ㄹ-'를 1인칭 주어와 일치하는 문법형태가 아니다.[41] 그렇다면 문제의 '-ㄹ-'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선 '-ㄹ-'가 구인에 나타나는 선어말어미 중에서 가장 뒤에, 어말어미에 가깝게 분포한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형태는 서법 또는 공손법(존비법)의 형태일 수밖에 없다. 이것

서도 그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데, 15세기 국어에서는 'ᄒᆞ고라체'에서 화석형으로 '-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따름이다.

39) 공형태의 개념과 그것의 문법사적인 의미에 대한 논의는 김영욱(1997)의 1장 4절을 참조할 수 있다.

40) 이것은 결국, 고영근(1981=1998)에서 논의한 15세기의 '-오-'를 석독구결의 '-ㄹ-'에 대응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ㄹ-'의 분포가 15세기의 '-오-'와는 사뭇 다르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41) 구인의 '-ㄹ-'가 15세기의 '-오-'는 다르다는 점이 문법 기능의 관점뿐만 아니라 형태론적인 관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盡ミニ ㄱㅅ ㅁ ㅣㄹ ㅣ(구인 11면20행)'에서 'ㅣㄹ ㅣ[이오다]'는 15세기 국어의 형태교체론에 따르면 '이로라'이어야 할 터인데, 이러한 형태교체의 양상을 석독 구결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이 만일 공손법의 형태라고 한다면 15세기에서조차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전기 중세국어 시기에 소멸한 문법형태일 것이다.[42]

4.0. 마무리

동작상은 '-ㅏ-', '-ㅌ-', '-ㅁㅌ-', 보조용언 통합 구성 '-ㅌㅎㄴ-' 등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시제는 가시적인 문법형태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일종의 부정법적인 것이었다. 구인에서는 '-더-'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뿐더러, '-리-'의 존재도 쉽사리 확인되지 않는다. 그 당시에는 시제 체계가 발달하는 과정에 있었던 듯하며 명제의 시간적인 위치는 동작류적인 특성에 따라 해석이 되거나 동작상에 부수되었다. 서법은 직설법의 '-ㅏ-', 추측법의 '-ㅓ-', 원망법의 '-ㅁ-', 확인법의 '-ㅿ/ㅱ-' 등이 있었다.

---

42) '-ㅱ-'의 흔적에 대한 역사적 탐색에서 우리는 장윤희(1997)의 '-쇼셔'의 역사에 대한 '시+α+셔'의 가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전기 중세국어에서 명령형어미 '-쇼[셔]'에 대한 논의는 이미 정재영(1996ㄱ)에서 밝힌 바 있다. '-쇼셔' 속에 '-시-'가 포함되었다는 점은 '겨쇼셔'의 분석에서도 알 수 있다. 국어 문법 형태가 기원적으로 '일음절의 원리'를 준수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쇼셔'도 분명히 일음절 또는 그 이하의 문법형태들이 합쳐진 화합형태일 터인데, '-시-'와 '-셔' 사이의 α가 무엇이었는지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필자는 이 자리에 들어갈 것이 15세기의 '-오-'와는 다른,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공손법의 '-ㅱ-'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논저

고영근(1993),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 체계』, 일지사.

(1995), 『단어·문장·텍스트』, 한국문화사.

(1997),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개정판)』, 집문당.

(1998),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보정판), 탑출판사.

김두찬(1997), "구역인왕경 구결 해독 시고", 구결연구2, 구결학회.

김영욱(1995), 문법형태의 역사적 연구, 박이정.

(1997), 『문법형태의 연구 방법』, 박이정.

남풍현(1996ㄱ), "고려 시대 석독 구결의 '尸/ㄹ'에 대한 고찰", 구결연구1, 구결학회.

(1996ㄴ), "고려 시대 석독 구결 동명사어미 '-ㄱ/ㄴ'에 대한 고찰", 국어학28, 국어학회.

박성종(1996), "조선초기 이두 자료와 그 국어학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7), "舊譯仁王經上", 구결학회 월례강독회 원고.

박영준(1994), 『명령문의 국어사적 고찰』, 국학자료원.

박진호(1997), "舊譯仁王經上", 구결학회 월례강독회 원고.

백두현(1997ㄱ), "고려 시대 구결의 문자 체계와 통시적 변천", 『아시아제민족의 문자』, 태학사.

(1997ㄴ), "고려 시대 석독 구결에 나타난 선어말어미의 계열관계와 통합관계", 구결연구2, 구결학회.

(1997ㄷ), "舊譯仁王經上", 구결학회 월례강독회 원고.

안병희(1977), 『중세국어 구결의 연구』, 일지사.

이승재(1991), "향가의 遣只賜와 구역인왕경 구결의 ㅁㅅㄴ에 대하여", 김완진교수 회갑기념 논총, 국어연구회.

(1992), 고려 시대의 이두, 태학사.

(1993), "고려본 화엄경의 구결자에 대하여", 국어학23.

(1996), "고려 중기 구결 자료의 주체 경어법 선어말어미 '-ナ(겨)-'", 이기문 교수 정년기념 논총.

이승희(1996), "중세국어 감동법 연구", 국어연구139, 국어연구회.

이 용(1996), 구역인왕경의 선어말어미 '-ㅁ-'의 분포와 의미에 대

한 고찰, 서울시립대 국문과 발표 원고.
(1997), " '-乙'에 대하여 ", 구결연구2, 구결학회.
이효상(1991), "Tense, Aspect, and Modality", UCLA 박사학위 논문.
장윤희(1997), "석독 구결 자료의 명령문 고찰", 구결연구2, 구결학회.
(1998), "중세국어 종결어미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정재영(1995), "전기 중세국어의 의문법", 국어학25, 국어학회.
(1996ㄱ), "終結語尾 '-立'에 대하여", 진단학보81, 진단학회.
(1996ㄴ), 의존명사 'ᄃᆞ'의 문법화, 태학사.
(1997), "舊譯仁王經上", 구결학회 월례강독회 원고.
한국철학사상연구회(1989), 철학대사전, 도서출판 동녘.
한동완(1996), 『국어의 시제 연구』, 태학사.
황선엽(1997), "舊譯仁王經上", 구결학회 월례강독회 원고.
Bybee,J.L.(1985), *Morphology*,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Palmer,F.R.(1986), *Mood and Mod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Wurzel,W.U.(1989), *Inflectional Morphology and Naturalness*, Klwer Academic Publisher(English translation: Manfred /schentke).